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12.07)

□ 개요

- 농림수산물식품부는 12월 1일 ‘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와 농어촌’이라는 비전하에 「도농교류 5개년(‘10~’14) 계획」을 발표함.
- 이 계획은 ‘07년 제정된 「도농교류촉진법」에 근거하여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교류사업을 ‘도농상생’이라는 비전하에 통합함으로써 향후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- 농식품부는 도농교류의 질적 성장을 위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임.
 - 도농교류 우수활동 모델 500개 발굴확산, 체험지도사 등 전문인력 1천명 육성, 전국단위 및 한·중·일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목표임.
 - ’10년 2,125억원 지원 등 지속 투자로 ’14년까지 연간 방문객 970만명, 마을 매출액 1,140억원을 목표로 함.
- 이번 계획은 도농교류의 생활화, 농어촌 체험·휴양 기반의 브랜드화, 도농교류 인적자원 양성, 도농교류의 글로벌화라는 4대 추진전략과 11개의 과제로 구성

□ 도농교류 정책 추진 연왕

- ‘84년부터 농촌소득원으로 관광농원, 농어촌 휴양사업 도입
 - 농어가의 농외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농어촌 휴양지 개발 도입,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, 농어촌정비법 등 근거마련
 - 관광농원(‘84), 민박(‘93), 주말농원(‘94) 등 개인사업 위주로 추진
- ‘02년부터 마을단위 농어촌체험관광 도입, 삶의 질 향상법(‘04)에 도농

교류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

- 체험마을, 테마공원, 어촌·어항관광개발 등 하드웨어 사업 추진
- 농어촌 체험 및 도농교류의 홍보·마케팅, 주민 역량강화, 체험마을 사후지원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
- 1사1촌 운동 등 민간차원 도농교류 운동 추진('06~)

○ '08년 도농교류촉진법 시행으로 질적 성장 도입단계에 도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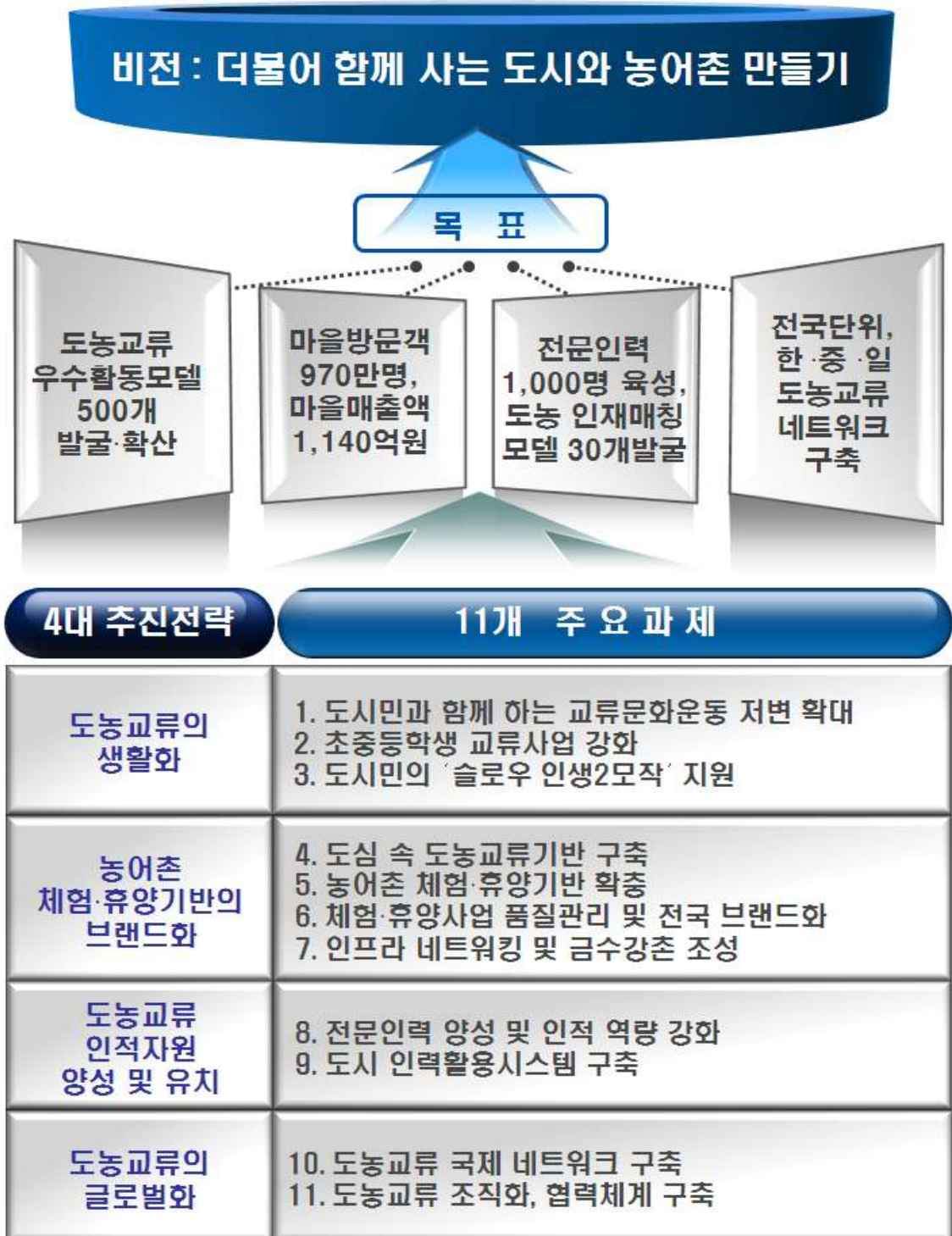
- 체험·휴양마을사업자 육성, 체험교육 활성화,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,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 제도적인 지원 근거 마련

표 1. 선진국과 우리나라 도농교류정책 비교

구분	유럽(영·프·독)	일본	우리나라
단계	질적 발전단계	질적 도입단계	양적 성장단계
주요 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촌관광으로 시작 · 농가 경영 다각화 · 전국 조직화, 네트워크 · 일반관광부문과 경쟁 (시장점유율 20%수준, 외국인고객 2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촌관광→도농교류 발전 · 지역 소득유지· 확보 · 전국 조직화, 네트워크 · 범부처간 연계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촌관광→도농교류 발전 · 농외소득 향상 도모 · 전국단위 조직 없음 · 마을공동사업 위주
주된 운영 주체	· 개인>민간조직> 지방정부>중앙정부	· 지방정부>개인(마을)> 민간조직>중앙정부	· 중앙정부>지방정부> 마을(개인)>민간조직
제도적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업관련법 * 농촌관광활동을 농업 활동으로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산어촌체재형여가 활동촉진법 제정('95), 농촌휴가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('07) 농어촌정비법 등
공공 부문 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설투자 보조 및 용자 · 직업훈련 및 교육 (관련비용 50~100% 보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설 설치 지원 · 소프트웨어분야 지원 (농업체험지원, 교육, 인재활용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설 보조 및 용자 · 소프트웨어분야 지원 (정보제공, 홍보, 인력 육성,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)
민간 부문 역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업인 > 은퇴자 · 민간조직 설립· 운영 · 민박농가 등록· 관리, 품질인증, 홍보, 경영상담, 조언, 기술교육, 연구, 정책제안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농업인 > 은퇴자, 귀촌인 · (재)도시·농산어촌활성화 교류기구 전담 · 컨설팅, 정보제공, 시설운영지원, 연수, 농가민박 등록제 운영, 인재육성, 홍보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마을 > 농업인, 귀촌인 · 민간전담조직 없음 cf. 도농교류센터 · 1사1촌 운동, 홍보, 주민 교육 등 산발적 추진

□ 정책 방향

1) 도농교류 정책 비전 및 전략



2) 도농교류 사업의 추진방향

- 지역주도의 도농교류 지원체제로 개편
 - (중앙정부) 전국단위 교류 네트워크 및 타부처 협력체계 구축, 도시에 효과적 정보 전달, 모니터링 및 평가에 중점
 - (지자체) 지역특성에 맞게 도농교류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·추진
-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등 소득사업과의 연계 강화
 - 민간, 지자체, 부처연합, 민·관 연합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활동 전개
 - 농어촌에 있는 음식, 문화, 예술, 체험·휴양정보를 결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 영역 창출
 - 각 부처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사업을 연계, 시너지 효과 제고

□ 세부 추진계획

1. 도농교류의 생활화

1) 도시민과 함께 하는 교류문화운동 저변 확대

-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수산물 소비운동 전국 확산
 - 소비자는 일정 회비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자는 그 대가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받는 대안적 소비운동 추진
 - 생산자와 직거래 가능한 농어촌, 도시의 중간지원조직 발굴 및 활동 지원방안 마련('10년)
- 도시민, NPO와 연계한 농어촌 환경·문화·경관자원 보전활동 추진
 - 주민, NPO, 기업 등의 참가를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마련('10년)
 - 양수장, 정미소 등 근대 농어업·농어촌 역사가 담긴 자원 발굴·보전
 - '(가칭)농어촌 유희자원관리사업단' 설치·운영 검토

- 농어촌 공동체 복원 등을 소재로 한 문화·경관자원 발굴·활용
 - 마을단위 농어촌 축제 발굴·지원, D/B구축 등 콘텐츠 관리
 -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'내 고향 숨은 보물찾기' 콘테스트 추진
- 1사1촌 운동을 농산물 소비, 다양한 상호협력활동으로 발전유도
 - NGO 협력활동 확대 및 500개 우수 활동 모델 발굴·확산(~14년)
 - 보다 책임있는 교류 활동 촉진을 위해 마을 명예이장(주민) 지정
 - 여성 농업인과 기업인 협력 네트워크 활동사례 발굴 및 확산
-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대상에 인센티브 제공
 - 우수 도농교류활동 기업에 '1사1촌 사회공헌 인증' 수여 및 홍보
 - 도시민·단체·기업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정부포상 실시

2) 초중등학생 교류사업 강화

- 초중등학생 농어촌체험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('10년)
 - 농어촌 체험학교인 '팜 스쿨(Farm-School)' 활성화
 - 시·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농어촌 현장체험교육 공동협력추진 확대
 - 초중등학생 장기간 교류사업 추진(교육과학부와 협력)
- 장기 체류 프로젝트로 농어촌 유학 활성화사업 추진('10년, 시범)
 - 유학센터 대표·지자체·교육청·학교 등이 참여하는 '(가칭)농어촌유학 추진단' 구성
 - 유학 프로그램 개발, 유학센터 운영방안 마련, 주민교육 추진
 - 시범운영 후 2011년부터 본 사업화하여 지역학교 살리기와 연계

3) 도시민의 『슬로우 인생2모작』 지원

- 농어촌 정주의향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시·군의 유치활동을 지원
 - 정주의향 형성, 이주준비와 실행, 정착 등 정주지원 단계별 프로그램을

체계화·보급, '14년까지 3,000가구 정주유도

- 정보제공, 상담을 위해 시·군 전담기구 설치·운영

- 빈집을 활용한 농촌·농가체험을 위한 장기 체재형 거주공간 제공

○ 농어촌에서 슬로우 인생2모작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수요창출단계부터 안정적인 정착지원까지 연계·협력추진('10년)

- 다양한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민들의 농어촌 정주수요를 창출

- 귀농·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귀농정보·교육, 컨설팅, 영농창업 등을 지원

- 정주수요가 귀농·귀촌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도시민 유치 시·군과 귀농·귀촌종합센터를 연계하여 협력 추진

2. 농어촌 체험·휴양기반의 브랜드화

1) 도심 속 도농교류 기반 구축

○ 대도시에 농어촌을 홍보할 '(가칭) 도농교류 안테나 슙' 설치, 운영

- 농어촌체험·휴양정보, 농어촌유학, 전원생활 정보·상담, 문화교류 정보, 관련 제품 전시·판매 등 서비스 제공

- 도농교류 안테나 슙 대상지 검토 및 운영방안 수립('10년)

○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모델 발굴·확산

- 도시생활농업 모델 정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시행('10년)

- 모델개발 및 교육, 기술지도(농진청), 관련법령 검토 등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등 도시농업 정착 유도(농식품부)

2) 농어촌 체험·휴양기반 확충

○ 다양한 농어촌 체험·휴양 지역교류거점 조성 및 연계 운영

- 농어촌 테마공원, 어촌 관광단지, 산림휴양시설 등 지속 확충

- 지역의 문화교류를 위한 신문화공간, 생태·문화·역사자원 등과 연계한

산림문화체험숲길을 확대 조성하고 상호 연계

- 인프라 조성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및 체험시설 설치, 재생에너지 활용 등 적용 유도
-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의 내실화
 - 마을단위 농어촌체험관광 거점으로 체험마을 조성 확대
 - 마을 체험기반, 경영,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 육성·지원
- 낙농 체험관광목장, 승마장, 교육농장 등 농가형 체험관광 조성

3) 체험·휴양사업 품질관리 및 전국 브랜드화

-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향상 유도
 - 마을의 시설,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여 인증제 또는 등급제 실시
 - 인증 또는 등급 결과를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자체 품질관리 유도
- 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사업자 육성 및 전국 브랜드화('10년~)
 - 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을 지역 및 전국단위로 조직하여 정보교환 등 유도
 -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, 경영지원 등으로 사업자 육성
 - 지정된 체험·휴양마을은 공동 브랜드 제작·사용, 전국 연계
- 체험·휴양사업을 다양한 경제활동주체로 육성·지원하여 도농교류형 '농어촌 공동체 회사'로 설립 유도
 - 농가 레스토랑, 체험학교 등 소규모 경영모델 발굴·육성
 - 지역 학교 살리기를 연계한 농어촌 유학센터, 마을공동체 체험·휴양법인, 마을문화공방 등 공동체 비즈니스 육성·지원

4) 인프라 네트워킹 및 금수강촌 조성

- 농가·마을·지역거점형 농어촌 체험·휴양 인프라의 연계

- 지역의 다양한 자원(관광+축제+특산물+문화)과 농어촌 체험·휴양 인프라를 패키지화한 프로그램 개발·활용 및 홍보
 - 시·군, 시·도, 전국단위별로 민박, 관광농원, 체험·휴양마을, 테마공원, 교육농장, 승마장 등을 연계한 홍보·마케팅 기법 개발
 - 인프라별 구성된 민간조직이 협력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,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추진으로 시너지 유도
- 도농교류·지역개발·농식품 산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패키지하여 지역 종합모델로 추진하는 「금수강촌」 조성
- 미래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금수강촌 모델 개발 연구(‘10년)
 -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종합 배치되도록 통합 설계(Grand Design), 지역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민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- 특산물, 역사·문화·자연 등의 자원을 토대로 지역브랜드(시·군 단위)를 대표할 수 있도록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명소 조성

3. 도농교류 인적자원 양성 및 유치

1) 전문인력 양성 및 인적 역량 강화

- 체험 지도사, 마을 및 바다 해설가 등 전문인력 육성·활용
-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전문 교육과정 인증 추진
 - 지역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양성하여 선발·활용
- 도농교류를 주도해 나갈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역량 강화
- 체험·휴양사업의 업무 역할에 맞는 역량 도출, 교육 추진
 - 교육생 수준에 맞는 ‘스스로 학습’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

2) 도시의 인력활용 시스템 구축

- 도시·농어촌을 연결하는 각계각층의 인재 매칭시스템 구축(‘10년)
- 농어촌 지역에 관심 있는 은퇴교사, 예술가, 기술자 등 도시민·단체를

농어촌 마을·단체 등과 연결해주는 중개 제도 도입

- 중개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인재교류체계 정비

○ 도농교류 분야 취업 체험 및 인력교류 시범추진('11~'14년)

- 중개 전담기관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, 마을 등과 협력하여 1주~1개월의 연수 후 체험·교류 추진

- 취업·봉사분야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, 활용모델 발굴·보급

4. 도농교류의 글로벌화

1) 도농교류 국제 네트워크 구축

○ 한·중·일 등 국제 도농교류 민간네트워크 구축, 교류추진

- 각 국가의 도농교류 사업, 민간조직과 활동 등의 노하우에 대한 정보, 체험·휴양방문객 교류, 국제 도농교류 박람회 등 추진

○ '2012년 농어촌 방문의 해' 선포, 농어촌체험·휴양의 글로벌화 본격 추진

- 국제농업박람회('12.10.5~10.29, 전남 농업기술원)와 연계

- 외국인 방문 유치에 위한 홍보·마케팅(한국관광공사와 협력), 체험·휴양 상품개발, 외국인 방문을 위한 기반 정비

2) 도농교류 조직화, 협력체계 구축

○ 전국 도농교류 협의체 구성, 도농교류활동 조직화

-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유도

○ 관계부처 간 도농교류 협력체계 구축, 협력사업 추진

- 농어촌 사회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도농교류 협의체 구성·운영

- 관련 부처간 정책 및 역할 협의, 협력사업 추진하여 시너지 창출